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2018년 7월 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1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8. 6. 30.(토)	담당부서	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
담당과장	김영만 과장(02-734-1864)	담 당 자	이윤진 사무관(02-734-1870)

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회기간 장관회의 개최

- 7.1.(일), 도쿄 -

□ **"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" 제5차 회기간 장관회의**가 7. 1.(일) **도쿄 하얏트 리젠시 호텔**에서 개최했다.

* RCEP 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 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.중.일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·태지역 메가 FTA

○ 회의에는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을 포함, 아세안과 일본·중국·호주·뉴질랜드·인도 등 **16개국 장·차관**이 참석했다.

□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정상**이 **'2018년 타결 목표'**를 설정한 이래 **두 번째로 개최**되는 장관회의로써, 연내 **의미 있는 성과 도출 의지를 재확인**하고, 상품·서비스·투자·규범 등 **협상 전반에 걸쳐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**했다.

□ **통상교섭본부장**은 이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**보호무역주의 확산** 등으로 자유무역체계가 도전을 받는 **최근 통상환경 속**에서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의 조속한 타결**은 **자유무역을 통한 '공동번영'의 가능성**을 대내외적으로 **시현하는 좋은 계기**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.

○ 또한, 상품·서비스·투자 등 시장접근 분야 **중요 이슈를 중심**으로 **가시적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**하고, 보다 **열린 자세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**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**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아나가자**고 당부했다.

□ 구체적으로, **상품과 서비스 분야**에서는 **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시장개방**을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국들이 제출한 **양허안의 질적 개선**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,

- **지재권, 전자상거래 등 규범분야**에서도 **무역원활화와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**할 수 있는 **선진적인 규범 마련**에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

□ **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은 높은 **경제성장률과 발전 잠재력**을 지닌 **아세안·인도** 등을 포함하여, **세계인구의 절반, 전 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1/3에 해당하는 국가가 참여**하는 있는 협상으로

*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 대(對)세계비중: 국내총생산(GDP) 23.8조 달러(32%), 인구 35억 명(50%), 교역 9.6조 달러(29%) ('16년 IMF)

○ 아시아·태평양 지역에서의 거대 경제블록 형성을 통해 우리의 **교역·투자 기반을 다변화**하고, **글로벌 가치사슬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앞으로도 정부는 **아태 역내 경제통합 주도 차원**에서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**유연성을 발휘**하면서도, **합리적인 절충안을 제시**해 우리의 **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**으로 **대응**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영만 과장(☎ 02-734-186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RCEP 협상 경과 및 의의**

1. 협상 경과

□ 2012. 11. 20 동아시아 정상회의(EAS) 계기 **RCEP 협상개시 선언**

□ 2013. 5월 협상개시 후 **22차례 공식협상** 및 **10차례 장관회의** 개최

□ 2017. 11. 14 RCEP 정상회의에서 **2018년 타결목표** 설정

2. RCEP 협상 의의

□ **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GDP의 3분의 1*을 차지**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RCEP 체결시 안정적인 교역·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RCEP 對세계비중: GDP 23.8조불(32%), 인구 35억명(50%), 교역 9.6조불(29%) ('16년 IMF)

□ 상대적으로 **경제성장률*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**** **미래 유망시장**

* '16년 성장률(IMF): 中 6.7% / 印 6.6% / 베트남 6.2% vs 美 1.6% / 유로존 1.7%

** 중위연령('17, UN): 인도 26.7세, ASEAN 29.2세 vs 한국 40.8세 일본 46.3세, 미국 37.6세

□ 원산지 규범 통일 등으로 우리기업의 **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활성화**

◈ RCEP 체결시 **경제적 기대효과**('12, KIEP)
- **(실질 GDP)** 10년간 **1.21~1.76%** 증가, **(소비자 후생)** 10년간 **113.51~194.56억 달러** 증대

3. RCEP 타결 시 기대효과

□ **(상품)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**이 논의 중인 바, 이 경우 **한-아세안/인도**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**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** 가능

□ **(서비스) 한-아세안, 한-인도 등 기체결 FTA**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**추가개방 효과 발생** 예상

○ **(투자)** 한-아세안/한-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**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**으로 **기체결 FTA 개선 효과** 기대

□ **(원산지)** 기체결 FTA상의 복잡·다양한 **원산지 기준을 단순화, 통일된 기준을 적용***함으로써 **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* 제고**

* FTA 수출활용률('17)은 한-아세안 47.8%, 한-인도 67.5%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

* (예시) A품목의 경우 한-아세안/베/호 "RVC40 or CTH", 한-인 "CTSH+RVC35", 한-중 "CTH"이던 것을 RCEP에서 "RVC40 or CTH"로 단순화